



박기선

LG필립스LCD사장

체계화된 知財權 관리가 세계 1위 LCD 기업 원동력

“체 계화된 총체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덕분에 LG필립스LCD는 최근 5년간 LCD 관련 특허출원 세계 1위에 이어 LCD 분야 미국 특허등록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1회 발명의 날’에 최고상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LG필립스LCD 박기선 사장은 수상소감을 회사의 몫으로 돌렸다.

LG필립스LCD의 박 사장은 최근 차세대 성장 동력인 IT분야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자다. 또한 LCD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실행, 선진업체들을 제치고 세계 정상급의 회사로 이끈 LCD산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박 사장은 매년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여기에서 개발한 발명특허를 권리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발명자들에게는 직무발명포상제 등 다양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특허전문 조직 내의 효율적인 특허업무 수행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LG필립스LCD는 전문화 체계화된 총체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다량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게 됐으며, 최근 5년간 LCD 관련 특허출원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핵심기술 확보야말로 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의 근원”이라면서 “신념을 가지고 차세대 구리배선 기술, 마스크 저감 기술, 액정적하 기술 등 LCD 관련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LCD의 불가능 영역으로 여겨왔던 100인치 TV용 LC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LCD 산업의 기술 수준을 진일보시키고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LG필립스LCD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7세대 LCD 생산라인을 준공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신규 고용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LG.Philips LCD는 1999년 LG전자와 네덜란드 기업인 필립스가 합작 투자를 통해 출범한 세계적인 TFT LCD 전문기업으로 2005년 대형 LCD 세계시장 점유율 20.7%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박 사장은 “LG필립스LCD는 앞으로도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로 유효 특허를 공격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핵심 특허 창출을 통해 TFT-LCD 분야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의 지식경영 활성화를 통해 평판디스플레이(FPD : Flat Panel Display)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을 위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